**김영랑’ın “모란이 피기까지는”Adlı Şiiri**

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 
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 
나는 비로소 봄을 여읜 설움에 잠길 테요  
5월 어느 날, 그 하루 무덥던 날  
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 
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 
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 
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,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 
삼백 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옵내다  
모란이 피기까지는  
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, 찬란한 슬픔의 봄을